

[태국, 2013년 7월] 수산물 및 수산식품 동향

1. 태국 현장 이슈

▶ 태국 동부 코사멧 인근 해역에서 원유 대량 유출

해수 및 해양자원 오염과 수산물 섭취 시 독성 물질 오염 대한 주의

- 7월 28일 태국 최대의 정유회사인 PTT의 동부 라용 해안의 유조선에서 크루드 오일이 유출되어 동부 해안의 유명 관광지인 코사멧 섬 지역까지 기름이 흘러들어가 해양 자원 및 해수의 오염과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 연일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청소작업에 동원된 인부들의 구토 및 어지럼증 호소 등 원유의 독성 물질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인근 연해에서 잡히는 해산물의 납, 카드뮴, 니켈 등과 같은 유독성 중금속 오염에 대한 경고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약 3개월간은 해산물의 오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섭취 시에도 고온에서 오래도록 조리하는 것이 중금속의 유독성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다며 환경 단체와 매체가 보도함.



- 현재 청소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고 PTT의 발표에 의하면 청소 작업이 90%이상 완료되었다고 하나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 청소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며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 피해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원유도 유기 성분이므로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해당 회사 CEO의 무책임 발언으로 환경단체와 시민 단체들의 우려는 지속 되고 있음.

- 새우 생산 감소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 하락에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불거져, 침체되어 있는 태국의 수산물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음.

출처 : *The Nation, Bangkok Post, Radio Thailand*

▶ 태국 새우 조기사망증후군 관련 소식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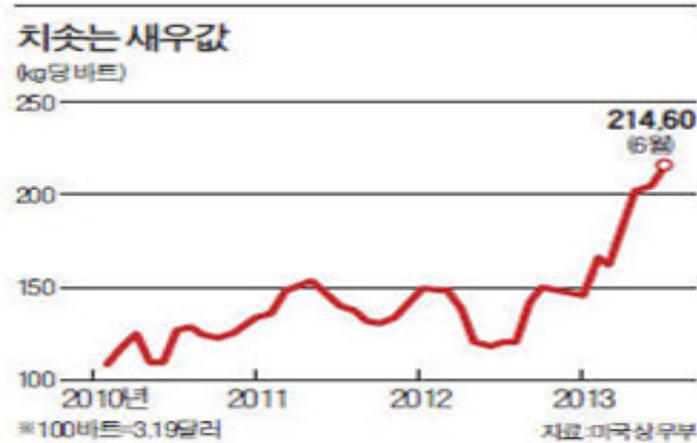
새우 조기 사망 증후군 점진적 회복세이나 치료방법은 아직 미개발.

- 기록적인 바트 강세와 엔화약세, 물량 부족을 배경으로, 올해 냉동 수산물 수출량은 감소하고 업자에게 가장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냉동 수산물 수출액은 650 억 ~ 700 억 바트로 전년

대비 15 %에서 20 % 감소될 예상임.

- 달러당 100엔대를 돌파하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이 28%를 차지하는 태국 냉동 수산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지난해부터 급격히 진행된 새우 전염병의 지속된 피해로 많은 업체가 양식을 포기하면서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가격은 40 ~ 50 % 상승됨.



- 태국 냉동식품 협회(TFFA)는 "정부가 조속히 전염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올해의 새우 수출량은 35만톤 이하, 200 ~ 300억 바트의 손해가 발생한다." 고 경고함.

- 미국에 유통되는 새우는 60% 이상이 태국산으로 전염병이 시작된 지난해 말 태국에서의 새우 수입량은 27% 줄었고, 올 들어 4월까지 23% 추가로 하락 태국의 최대 수출업체인 Thai Union Frozen은 새우 값이 미국에서 이미 20%나 뛰었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함. 올해 생산량 전망치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3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

- 새우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출처: 세계 수산 양식 연합, The Fish.com, Bangkok Post

- 태국 새우 관련 업계는 새우 생산이 2014년에 회복될 것이라 전망

- 올해 상반기 새우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57%이나 현재 조기 치사율이 업계의 노력으로 인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들어 현재 상황에서의 올 한해 예상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50% 감소 할 것으로 태국 양식 및 수산물 협회가 공동 발표함.

- 부화장과 양식장의 공동 노력으로 조기 치사율이 약 50 ~ 60% 개선되었고 올해 3분기 때부터는 생산량이 소폭 상승하기 시작하여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예년의 부화량과 생존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새우 무역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양식 환경의 위생 및 생태 환경 개선이 지속된다면 올해 8-9월부터는 생산량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 새우 조기 사망 증후군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vibrio parahaemolyticus균에 대한 사전 검사가 미리 이루어져 보균 어미새우의 격리, 부화 전 분리, 원인균이 많은 바닷물에 직접 투입 금지, 수위의 엄격한 조절 및 철저한 위생 관리 등 예방책이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업계, 정부 및 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법은 나오지 않았음

출처: The Fish Site .com

▶ 태국산 수산물,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 상승

- 전염병 피해를 입은 새우의 가격상승 뿐 아니라 수산 가공 업체인 '퍼시픽 피쉬 프로세싱'은 바트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의 추가 인상은 어려워, 해당 업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함.

- 태국 남부 크라비에서는 연일 높은 파도로 인해 소형 선박이 출항하지 못해, 도내의 수산물 가격이 급등함.

-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시장에서는 임시 휴업하는 상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일부에서는 정상 가격의 10-20%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생산 현장 등에서는 인건비 절감, 비용 조정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저임금을 주도하고 있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권적 노동 현황과 노예 노동 및 미성년 불법 노동 등에 대한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고조되어, 태국 수산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음.

▶ 태국 정부: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산식품 HUB될 계획

- 농경부와 협력부는 태국을 동남아시아 지역 수산식품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중임.

- 시리완 카훈프라삿 농업부 장관은 수산처와 수산물 마케팅 기관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수산물 마케팅 기관이 수산식품의 무역센터 역할을 하고 어업종사자와 부두의 서비스와 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수산처는 태국산 수산식품이 글로벌 시장에 합당한 국제 규격을 따르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 계획의 골자는 수산물 마케팅 기관의 방콕 지점을 슈퍼마켓, 식당 및 호텔 등에 양질의 수산물과 관련 식품을 납품하는 중앙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임.

- 현재 이들 기관들은 연간 2백만 바트 이상의 적자로 고전 중에 있으며, 정부는 태국산 수산식품을 무역 박람회 등에서 홍보하고 수익성 증진을 위해 기타 부처에 판매하는 방안도 도모하여 정부에 따르면 연간 천만 바트 이상의 매출 증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함.

출처: National News Bureau of Thailand / BANGKOK, 22 July 2013

▶ 수산 양식용 사료의 원료 수산물 품질 개선위한 프로젝트 발족 .

- 지난 7월 20일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수산 양식 사료 협의회에서 지속가능 수산업 동맹 (SFP)은 동남아시아 수산업 개선 프로젝트 (FIT)를 발족하고, 아시아 지역의 수산 양식 사료의 원료 수산물의 품질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 정부와 산업 각계의 유관 기관이 공조하여 태국과 베트남 각각 2개씩의 프로젝트로 진행할 예정임.
- 수산업계의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수행 계획을 수립,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일반에게 진척사항을 보고하는 체계를 회의에서 결의함.

2. 수산물 수입 동향 및 전망

▶ 태국 전갱이 수입현황(2013년6월YTD)

수입국가	물량/Ton	금액/천불	점유율	물량 증감%	금액 증감%	2012단가 Kg/USD	2013단가 Kg/USD
노르웨이	407	817	49.35	152%	134%	2.3	2.0
네덜란드	238	443	26.75	-17%	-18%	1.9	1.9
한국	167	216	13.04	-81%	-84%	1.7	1.3
일본	40	58	3.49	-38%	-36%	1.4	1.4
중국	56	51	3.07	전년수입無			0.9
칠레	17	34	2.07	전년수입無			2.0
뉴질랜드	17	34	2.05	전년수입無			2.0
전체	946	1,656	100.00	-45%	-54%	2.1	1.7

- 올해 6월까지의 태국 전갱이 수입은 946톤, 약 166만불 규모로 지난해 동기 실적대비 물량 -45%, 금액 -54%로 대폭 감소함
- 전년도 수입실적 1위로 6월까지 태국 전갱이 수입의 71%를 차지하며 879톤 이상 수입되던 한국산 전갱이는 올해 6월 수입되지 않았으며 물량과 금액 모두 약 80% 이상 감소함
- 일본산 전갱이의 수입도 물량 38% 그리고 금액 36% 감소함
- 전년도까지 수입량이 없었던 중국, 칠레 및 뉴질랜드산 전갱이가 새로 수입됨

- 지난해 6월 평균 수입가 2.3불의 노르웨이산 전갱이가 올해 6월까지의 평균가가 Kg당 2불로 하락되면서 물량과 금액이 각각 52%, 34% 증가하여 한국을 제치고 수입 1위를 차지함.

▶ 태국 콩치 수입 현황 (2013년 6월 YTD)

수입국가	물량/Ton	금액/천불	점유율%	물량 증감%	금액 증감%	2012단가 Kg/USD	2013단가 Kg/USD
일본	36,577	30,067	45.51	362%	360%	0.8	0.8
중국	19,946	15,644	23.68	-39%	-49%	0.8	1.0
모로코	6,467	8,441	12.78	23953%	38541%	1.3	0.8
멕시코	4,866	4,526	6.85	-65%	-69%	0.9	1.0
한국	694	393	0.59	1010%	738%	0.6	0.8
전체	78,012	66,064	100	-31%	-31%	0.85	0.9

- 6월까지의 전체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물량 및 금액 모두 약 29% 감소하고 수입 가격은 0.85 USD로 변화 거의 없음.

- 역시 일본산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져 약 3.6배가 증가한 반면 비슷한 가격의 중국산 콩치 수입이 수입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 37%, 금액 49% 감소함.

- 지난해 6월까지 27톤 수입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0.02%에 불과하던 모로코산 콩치 수입이 올해 동기간 6467톤, 844만 불 수입되어 전체 콩치 수입 금액의 약 13%를 차지하여 3위 수입국가로 상승함. (2012년 6월 평균 수입가격 0.8 불, 올해 동기간 수입가격은 KG당 1.3불)

- 한국산 콩치도 kg당 0.6불이라는 지난해 동기간 가격보다 1.7불 하락한 최저가격으로 대폭 수입 물량 상승함. (물량 10.1배, 금액 7.4배)

- 지난해 6월에는 수입되지 않던 한국산 콩치가 올해 6월에는 한 달 동안 97톤 수입됨.

▶ 태국 굴 수입 현황 (2013년 6월 YTD)

수입국가	물량/Ton	금액/천불	점유율%	물량 증감%	금액 증감%	2012단가 Kg/USD	2013단가 Kg/USD
프랑스	76	717	46	141%	174%	9.5	7.5
호주	39	317	20	133%	133%	8.1	7.9
일본	13	164	11	186%	185%	13.0	16.1
미국	13	137	9	104%	131%	10.9	8.9
한국	32	123	8	-6%	-8%	3.8	3.9
중국	14	52	3	전년도 수입 無		3.7	
전체	191	1,562	100	116%	152%	5.9	8.2

- 올해 6월까지의 태국의 굴 수입은 191톤, 156만 불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물량은 116%, 금액은 152% 증가함.

-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일본산 굴의 수입량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짐. 평균 수입가인 Kg당 8.2보다 훨씬 높은 Kg당 13불로 수입되었지만 전년보다는 3불 가량 하락한 수준으로 수입되었으며 전체 수입량은 186%, 수입 금액은 185% 증가함.

- 한국산은 지난해 6월의 수입금액이 6만9천 불이었으나, 올해 6월은 수입이 전무함. 올해 6월까지의 총 수입은 물량은 6%, 금액은 8% 감소하였음.

- 전년도까지는 수입되지 않았던 중국산이 올해에 Kg당 3.7불로 약 14톤이 수입되어 최저 가격선을 이루던 kg당 3.8불의 한국산을 대체하였음.

▶ 태국 고등어 수입 현황 (2013년 6월 YTD)

수입국	2012년 6월 누계			수입국	2013년 6월 누계					2013단가 Kg/USD	2012단가 Kg/USD
	물량/Ton	금액/천불	점유율%		물량/Ton	증감율%	금액/천불	증감율%	점유율%		
1 중국	13,467	14,219	30.4	1 일본	14,965	141%	15,012	152%	51.1	1.0	0.9
2 일본	10,618	9,865	21.1	2 노르웨이	3,867	126%	7,224	-20%	24.6	1.9	2.9
3 노르웨이	3,077	9,029	19.3	3 중국	4,807	-66%	4,531	-68%	15.4	0.9	1.1
4 인도	4,563	6,404	13.7	4 한국	1,263	-40%	1,064	-42%	3.6	0.8	0.9
6 한국	2,101	1,829	3.92	5 영국	249	260%	636	179%	2.2	2.5	3.7
전체	37,363	46,696	100.00	전체	26,117	-30%	29,375	-67%	100.00	1.1	1.2

- 올해 6월까지의 고등어 수입은 26,117톤, 29.4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수입량은 30%, 수입 금액은 37% 감소함.

- 지난해 6월까지의 고등어 수입가는 Kg당 1.2불에서 올해 동기 1.1 불로 소폭 하락하였음.

- 원전사고로 일본과 주변국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품목인 일본산 고등어는 태국에서의 수입 증가를 꾸준히 거듭하여 저가 고등어의 주류를 이루었던 인도 및 파키스탄산과 중국산을 대체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전체 수입금액의 51%를 차지하며 전체 1위임.

- 프리미엄 고등어로 선호도가 높은 노르웨이는 전년 동기대비 2.9불의 높은 수입단가가 올해 대폭 하락하여 1.9불로 수입됨에 따라 물량은 26% 증가한 반면, 전체 수입 금액은 20% 하락한 7.2백만 불 규모임.

- 중국산의 수입 감소가 가장 현저하여 전년 보도 수입 물량에서 64% 감소, 수입 금액 또한 68% 감소하여, 전년도 1위 수입국가에서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한국산도 일본산의 수입 증가와 함께 올해 평균 0.8불이라는 평균이하의 수입가격에도 불구하고 물량 및 금액 모두 약 40% 감소한 1,263톤, 636,250 불 정도가 수입되어 4위를 기록함.

- 지난해까지 미미한 수입물량을 보이던 영국산 고등어가 전년 3.7불에서 2.5불로 하락하며, 수입물량 260%, 수입 금액 179% 대폭 증가함.

▶ 태국의 김 수입 현황 (2013년 6월 누계)

수입국	물량 Ton	금액 (천불)	점유율	물량 증감(%)	금액 증감(%)	2012단가 YTD/kg	2013 단가 YTD/Kg
1. 한국	1,099	15,169	76.8	153%	149%	14.2	13.8
2. 중국	595	3,811	19.3	-32%	-45%	7.9	6.4
3. 일본	38	412	2.1	176%	111%	17.1	10.8
전체	1,863	19,744	0.9	103%	109%	10.0	10.6

- 6월까지 올해 태국의 김 수입 총량은 1,863톤, 1,974만 불로 지난해 동기보다 물량은 3%, 금액은 9% 증가하였음.

- 지난해부터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한국산 김은 Kg당 13.8불로 수입되었음. 이에, 물량은 53%, 금액은 49% 증가한 반면, 중국산은 물량 32%, 금액 45%가 감소되었음.

- 원전 사고 이후로 자국과 인근 국가에서 소비량이 많이 줄어든 일본 수산물의 태국 수입이 증가한 이후, 일본산 김도 올해 평균 수입가가 지난 해 동기보다 5불 이상 저렴한 Kg당 10.8불로 수입되어 물량이 약1.8배 증가함.

▶ 태국 참치 수입 현황 (2013년 6월 YTD)

	2013 6월 YTD					6월 누계 평균 수입단가	
	물량/Ton	금액/천불	점유율%	중량증감율	금액증감율	2013 Kg/USD	2012 Kg/USD
1 타이완	17,076	43,551	17.4	-35%	-42%	2.6	2.9
2 바누아투	10,372	24,986	10.0	-15%	-25%	2.4	2.7
3 한국	9,853	22,759	9.1	132%	131%	2.3	2.3
4 미국	8,415	19,858	7.9	-15%	-15%	2.4	2.4
5 일본	8,005	19,344	7.7	175%	123%	2.4	3.4
6 필리핀	6,772	17,161	6.8	269%	269%	2.5	2.5
7 인도네시아	7,757	16,253	6.5	182%	142%	2.1	2.7
8 중국	5,835	14,791	5.9	112%	97%	2.5	2.9
전체	101,315	250,594	100	102%	93%	2.5	2.7

- 전년도 Kg당 2.7불의 가격에서 올해 2.5불로 약간 하락한 평균 수입 단가로 전체 수입량은 2% 증가하였으나, 수입금액은 7% 감소하였음.

- 수년간 1위를 지켜오던 타이완의 수입량 및 금액의 감소가 두드러져 각각 35% 및 42% 감소하였고, 한국 (+31%), 필리핀 (+269%), 인도네시아 (+42%)등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짐

(데이터 출처: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3. 태국 수산물 시장 이슈

▶ 태국산 김스낵 대표 브랜드 Taokaenoi, 한국산 조미김 모방 제품 출시



- 한국과 달리 조미구이김이 스낵으로 주로 소비되는 태국의 경우, 김스낵 대표회사인 Taokaenoi사에서 한국산 조미김과 같은 사이즈와 용량의 제품 출시하였으며, 대형 슈퍼마켓에 한국제품과 같이 진열 판매 중임.

- 가격은 한국산 대비 5-10% 저렴한 45 바트 선 (정상가 판매 기준)

▶ 일본산 고등어 초저가 판매로 한국산 고등어 수입 대폭 감소



일본산 고등어 할인 행사
(Big C Extra)

한 마리 당 27바트
(약 1000원)



같은 매장의 일본산 고등어
구이 할인 판매 (엄청난 인기)

한마리당 29바트
(데리야끼 소스 포함)



노르웨이산 고등어 Makro
(할인 도소매 전문점)

Kg당 99/95바트
- 평소보다 적은 재고
- 일본산 재고 소진

- 산지 표시가 없으며, 구이판매 직원은 원산지를 모르고 있었음.
- 집에서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 태국문화에서 식당 평균 물가에 비해 비싼 편이었던 (4등분 토막 구이 당 최저 60바트에서 최고 250바트) 고등어 구이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
- 일본과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기피 수산물로 분류가 되어 소비가 부진한 일본산 고등어가 싼 값으로 태국인의 밥상에 오르며, 한동안 상승세에 있던 한국산 고등어의 수입도 대폭 줄었음.